

오-라, 곤 생체전자기장 (生體電磁氣場)의 연구

연구자 · 의학박사 쟝 칸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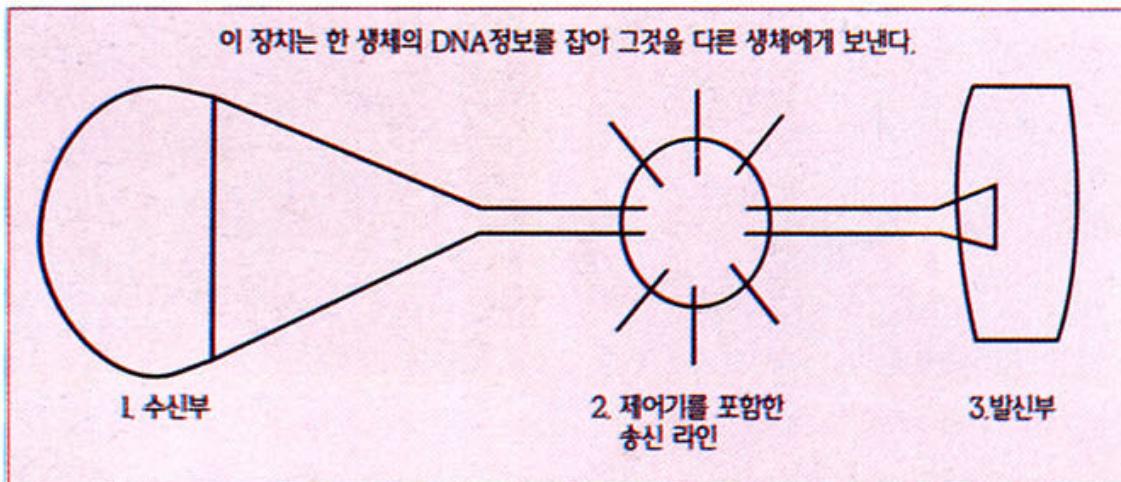
낱낱의 생물이 다 제나름의 생체전자기를 방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유전 정보가 DNA의 분자들 속에 담겨 있고, 그 정보는 역시 DNA에 의해 내보내지고 전달된다고 여겨져왔다. 현대 물리학에서 이뤄지는 발전들을 보면서, 나는 DNA가 실은, 다만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일 뿐이고, 그 정보를 실지로 전달하는 것은 생체 전자기 신호가 아닐까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생체전자기장과 DNA가 함께 유전 물질을 형성하며, 그것은 두 가지 형태

로 존재한다.

하나는 소극적 · 피동적 형태(DNA)요, 하나는 적극적 · 능동적 형태(생체전자기장)이다. 소극적 형태가 유전정보를 보존하고, 적극적 형태(곧 발신 · 전달하는 기능)는 그것을 수정할 수가 있다.

생체전자기 신호-이 신호는 에너지와 정보를 동시에 내보내어 전달한다는 바로 움직이는 광자(光子)이다. 양자론(量子論)에 따르면 광자는 입자성(粒子性)과 파동성(波動性) 양쪽을 지니고 있다.

▼ 그림 1 생체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장치





▲ 그림 2

광자(光子)의 입자(粒子)적 특성은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나타난다. 이 때에 생체는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수신한다. 이미 알려진 바로는 광자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그 에너지는 작으며, 그러므로 그 생체의 한정된 에너지가 가장 많은 광자를 여기(勵起)시킬 수 있다.

한편, 광자의 파동성에 있어서는 그 주파수 스펙트럼의 가장 높은 주파수 대역(帶域)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역에 큰 정보 송신 장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규명함으로써 대단위의 정보 수신과 높은 질(質)의 송신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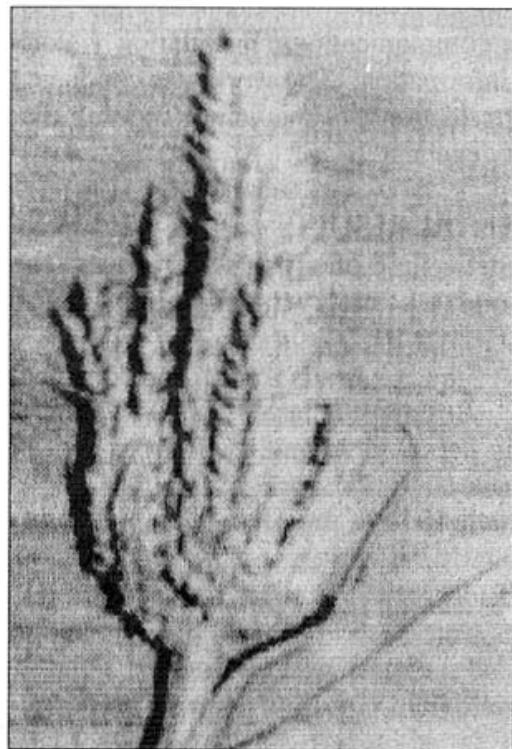
뭉뚱그려보면, 에너지와 정보의 물질

**'생체전자기장'은
바로 한 생물로부터
다른 생물로 전해질 수 있는
생물발생·유전정보의
물질적 전달자이다.**

적인 전달자인 생체전자기장은 마이크로웨이브 곧 극초단파와 전자기 스펙트럼의 중간부분 적외선 대역 양쪽에 존재하는 것이다.

생체마이크로웨이브 장치를 만들어 실험한 결과, 유전 정보의 송신·전달

▼ 그림 3



오-리, 곤 생체전자기장의 연구



▲ 그림 4

에 대한 많은 성과를 얻었다. 여기에 그 성과를 몇 가지 소개한다.

■ 식물 및 동물 실험의 결과

1. ‘푸른 밀’의 생체전자기장(정보를 주는 자)이 발아한 ‘옥수수’ 알(정보를 받는 자)에 미친 효과(그림2,3 참조)

처리된 옥수수알을 심어 자라난 옥수수는 여러 개의 곁줄기(곧 갈라진 대)를 펼치고 있었다. 옥수수 이삭이 열린 모양은 보통의 옥수수와는 달리 밀과 같은 식으로 이삭이 달리는 모양을 보였다. 또한 이 시료 옥수수는 소출이 월등히 높았다. 보통보다 옥수수알의 수가 200%, 곡물로의 양은 300%였다. 더구나 그렇게 획득된 변화가 후대에 유전되었다.

2. 멜론의 생체전자기장(주는 자) 가 싹튼 오이 씨에게 미친 효과(그림4 참조)

처리된 씨(시료)를 심어 열린 오이에서는 멜론의 맛이 났다. 생화학적 분

석 결과 DNA의 변화가 있음이 나타났다. 획득된 변화는 다음 대에 이어졌다.

3. 땅콩의 생체전자기장(주는 자) 이 싹튼 해바라기 씨(받는 자)에 미친 효과

해바라기 씨의 모양이 달라졌다. 일부는 땅콩 맛이 났다.

4. 오리의 생체전자기장(주는 자) 이 달걀(받는 자)에 미친 효과(그림5 참조)

처리된 계란 500개(시료)를 부화시켜 480마리의 병아리가 나왔는데, 다음과 같은 변화가 관찰되었다.

- 병아리의 25%에서, 발의 물갈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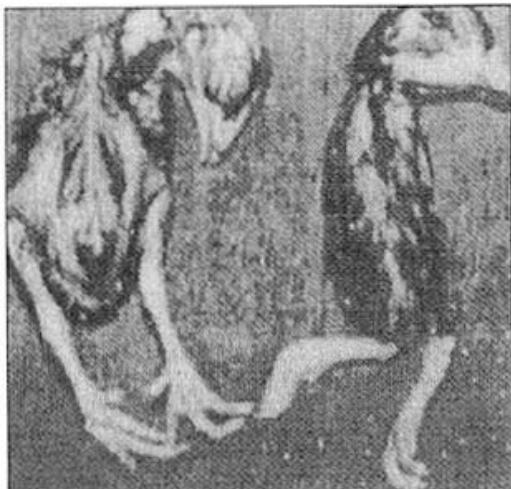
▼ 그림 5



생겨나고 있었다.

- 80%에서, 머리 모양이 오리처럼
넙적해졌다.
- 70%에서, 목이 길어져 있었다.
- 90%에서 눈이 오리 눈에 가까워져
있었다(그림6 참조).

획득된 변화는 후대에 이어졌다.



▲ 그림 6

5. 구부러진 긴 뿔이 있는 염소의 생체전자기장(주는 자)이 새끼를 밴 암토끼(받는 자)에게 미친 효과 태어난 토끼들에게서 크고 구부러진 이빨들이 돌아났다(그림8 참조).

■ 생체의 회춘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특히 젊은 생체의 전자기장이 늙은 생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고 싶었다. 첫 실험은 늙은 쥐를 이용했다. 늙은 쥐들을 식물(植物)의 어린 짹 및



▲ 그림 7

동물 태아의 생체전자기에 쏘이게 한 것이다.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성기능 및 생식 기능의 회복(31%)
- 수명 연장 1~1.5년(53%)
- 식욕, 반응 속도 및 동작 민첩성의 향상(68%)

**이 발견에 입각한
회춘(回春) 기법은 암과
면역학적 질병 치료에 있어
굉장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락, 곧 생체전자기장의 연구

1987년에 나는 비슷한 실험을 나 자신에게 했다. 그 긍정적 결과는 주관적 및 객관적 증거와 더불어 입증되었다. 이 생체 회춘 실험에 자원하고 나선 두 번째 사람은 80세인 나의 아버지였다. 결과적으로, 그의 20~30년 묵은 건강 문제의 어떤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앤러지성의 가려움증, 귀 속의 울림 및 양성 종양 등이 사라진 것이다. 6 개월 뒤에는 머리칼이 빠져 없었던 부분에 머리칼이 나왔으며, 백발이 검어졌고, 20년 전에 빠진 이의 자리에서 새 이들이 나왔다.

이 분야에서 얻은 긍정적 결과들이, 1991년 특허를 받은 '생체 회춘법' 발명의 기초가 되었으며, 나의 극초단파 치료기법의 실시에 대한 보건성의 허가를 받게 해주었다.

■ 생체회춘의 이론적 근거

포유류의 평균수명은 성장기간의 5~7배의 길이라는 생물학의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125~175년이어야 마땅하다. 인간의 성장기간은 25년이기 때문이다.

한 생체의 노화는, 섬세한 기관들의 능동적 유전인자를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 기관들이 재생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다른 종의 젊은 생체전자기를 쏘이게 하면 늙은 생체의 잠든 유전인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 극초단파 치료법의 적용 결과

나의 마이크로웨이브 요법 실시에 대한 보건성의 허가가 있은 다음, 나의 치료 받기를 자원한 14명의 실험그룹이 조직되었다.

이들(표1 참조)의 의학적 분류는 아래와 같다.

동맥경화증 - 5(케이스), 협심증 - 2, 소아발작 - 2, 위장계통의 궤양 상태

표 1	연 령					총 인원
	40-50	51-60	61-70	71-80	81세이상	
남자	2	5	3	1	-	11
여자	1	2	-	-	-	3
합계	3	7	3	1	-	14

창 칸젠

- 4, 간염 - 5, 척추골연화증 - 6, 관절증 - 2, 습진 - 3, 건선 - 6, 신경증 - 7, 양성 종양 - 2(케이스).

케이스로 보면 총 39케이스이며, 14 환자 한사람이 평균 3가지의 질병을 갖고 있는 셈이다.

◆ 치료결과

- 완전치유 - 6 케이스, 양성종양 포함.
- 상당히 호전됨 - 2 케이스.
- 호전됨 - 8 케이스.
- 변화 없음 - 2 케이스.

◆ 회춘징표

- 전반적 상태 향상 - 12명
- 젊어보이게 됨(5~10년 젊게 보임) - 11
- 흰머리가 없어짐 - 9
- 성기능의 향상 - 7

■ 암의 치료

암, ADIS 및 장기이식수술 후의 면역 장애의 치료가 나의 연구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 오고 있다.

최초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은 20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의 실험은, 암세포를 접종한 10마리의 토끼를 '주는 자'로 하여 그 생체전자기를 인공적으로 종양을 유발시킨 300마리

의 쥐에 조사하는 것이었다.

알려진 바와 같아, 토끼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암세포 접종으로 자극된 토끼의 면역의

힘이 조사된 악성 종양 상태의 쥐 300마리 중 70%가 살아남게 했다. 한편 역시 인공적으로 암을 유발시킨 대조군 300마리는 모두 죽었다.

나는 1973~78년에 하바로브스크 의과대학에서 연구실 보조로 있으면서, '생체마이크로웨이브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암의 치료'라는 주제로 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시켰다. 1991년 나의 '면역 반응 제어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이것은 암의 치료와 장기 이식을 위한 방법이다.



창 칸젠 박사는 1933년 중국 요녕성에서 태어나 1959년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의학 연구와 병행하여 인공두뇌학, 양자역학 및 무선통신공학을 연구했으며, 이런 연구가 그의 '유전적, 생물학적 및 심령적 정보는 생물의 EHF(생체마이크로웨이브)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전달된다'는 가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